

## 일본 침례연맹으로 부터의 편지 5

5 월 17 일 판

일본 침례연맹 재해대책본부  
상무이사 가토 마코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3 월 11 일의 대지진으로 부터 2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날 이후, 온세계의 형제자매들이 일본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안에 있는 사랑과 우정의 증표로서 많은 헌금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도 맹렬한 회오리와 홍수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오늘도 인간이 만들어 낸 무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기고 있는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저희들은, 온세계의 형제자매들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맡기신 복음선교의 사명을 되세기고 있습니다. 「전세계로 나아가 가서, 모든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평화를 만들어 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본의 크리스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과 사람들사이에서 봉사 할 수 있게, 아무쪼록 이 이후도 계속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1. 피해지역의 상황**

「사망자 15,000 명, 행방불명자 9,500 명. 피난 생활자 115,500 명」. 2 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해일피해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매일 사체의 수색이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장애물의 철거나 흙탕물 재거 작업이 조금씩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피해의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직 아무 것도 손을 대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가설 주택의 건설이, 해일의 걱정이 있는 해안부가 아니고 내륙부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 어업관계로 일을 해 온 사람들은 바다에 깊은 애착이 있어, 그 이주 계획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생활 재건을 향해서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고뇌 속을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 **2.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아직 결속의 전망이 서지 않고, 극히 최근에 되어서 1 호 원자로가 중대한 멜트다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의 사고에 의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불안을 주고, 방사능확산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인간에게는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 인지.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서 유효하여, 환경에 이로운 에너지다」라고 하는 선전이 행해져 왔습니다만, 그것은 실수이며, 저희 들의 과학기술에의 과신, 오만의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30km 권내의 사람들은 피난을 강요당한 채, 피난처에서 장래가 보이지 않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일시)한시 귀가의 허가가 내려져, 방호복을 입은 주민들이 2시간만 자택에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현은, 자연이 풍부한 농업이 왕성한 지역입니다. 그 후쿠시마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은, 수도권의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후쿠시마에게 사는 사람들은 일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의 사고로, 수도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후쿠시마의 사람들에게 이만큼의 부담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알았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림들은, 교회를 포함하여,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일본 침례연맹의 지원 활동

일본 침례연맹의 재해대책의 지원 활동은, 지진발생으로 1 개월을 기하여, 활동의 중심을 구원 물자운반으로부터 피난하고 있는 분들로의 급식 서비스나, 해일로 흙탕물에 묻힌 집의 청소등의 봉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이 넓고, 피해의 상황이 다르므로, 북쪽에서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세개의 팀을 만들어, 각각 지원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테팀은, 해일로 집을 잃은 분들에게 필요한 일용품, 학교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등의 지원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야기팀은, 피난한 분들에게 급식 서비스나 흙탕물 반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팀은, 원자력 발전소의 부근에서 피난해 온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당일에는, 고리야마의 교회가 피난소의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 한 바, 아이들은 대단히 기뻐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지진 이래, 아이가 이렇게 웃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부모님들로부터 감사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지역이 넓은 것에 대해, 동북지역에는 일본침례연맹의 교회가 적은 것. 라이프라인과 교통망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고, 일본침례연맹의 교회가 많이 있는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인 것등의 이유로, 생각처럼 지원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의 베이스캠프를 정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여름방학의 자원봉사를 향해서, 피해지역에서의 봉사를 전개할 수 있게 준비를 갖추어 갈 예정입니다.

#### 4. 모금과 활동 지출 상황

- ◆모금 (5 월 17 일자 ) ... 6,143 만엔 (그 중 해외 2,333 만엔)
- ◆활동 지출 (5 월 17 일자 ) ... 1,017 만엔
  - 피해지역교회 200 만엔
  - 피해지역지원 물자 667 만엔 (식량, 연료, 의류, 기재, 자동차등)
  - 지원 활동 150 만엔 (교통비등)

#### 5. 기도의 과제

-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하루라도 빨리 결속하고, 방사능 비산을 막을 수 있게. 그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활동이 지켜지도록.
- 보이지 않는 방사능의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과 몸이 지켜지도록.
- 오래동안 이어지는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이 지켜지고, 생활 재건의로의 전망이 주어질수 있도록.
- 찢겨지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되신 하나님의 위안과 위로와, 희망이 쏟아지도록.
- 일본의 기독교회가 함께 기도를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